

<지난주 말씀>

▶교회가 다른 길을 걸어가고 목사가 다른 소리를 한다면 그처럼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오직 예수만 답이고 길이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와 목사를 만나서 함께 간다는 것만큼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여기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은 오늘 우리에게 말의 중요성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 믿음과 행위가 복음이 맞다면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이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오직 예수만이 길이라고 말하지 않을 때는 늘 교회를 다니면서 저런 행동을 하나, 라고 하면서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복음 말고 다른 것을 먼저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말하고 다른 것을 전달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주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과거의 삶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허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으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약 3:7-8)

이 허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독을 내뿜는 무기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의 중요성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것은 생각의 복음화입니다. 이번주에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말을 하려다가도 생각의 복음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각인된 대로 입에서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실상과 증거를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실상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증거로 붙잡는 것입니다. 이걸 붙잡은 사람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행위가 되는 이유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일치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행위가 있다는 것이고 행위가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고 행위가 없다면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장이 아닙니다. 복음을 강조하는 장입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행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동일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산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은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성취로, 기도응답으로, 구원역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과 행함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믿음이 행함을 통해 온전케 됩니다. 믿음과 삶이 동일한 상태가 되면 행함이 나오고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맞다면 그 사람은 차별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권력자나 약자나 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제를 드리기 위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행위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고 그를 의인으로 칭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라합은 요단을 건너온 이스라엘 민족을 알았습니다. 이 여리고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면 여리고가 무너질 것을 알았던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라합의 믿음과 행위를 의로 여기고 그녀를 메시아의 계보에 넣어 주셨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고 무엇을 붙잡고 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본론>

1. 허는 곧 불ियो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행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약3:1)

선생은 아는 자입니다. 가르치는 자입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것은 알고 가르치면서 네가 나올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말곤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약3:2)

인간은 다 실수가 많습니다. 실수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선생이라고 해서 실수가 없습니까? 선생이라서 실수합니다.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굴레가 되는 것입니다. 굴레가 된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도록 통제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말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실수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는 말꾼이 되어선 안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약3:3)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순종하고 길들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워서 온 몸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약3:4)

큰 배도 작은 키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게 말의 중요성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혀가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키와 같다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만이 내 말을, 내 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통제할 수 있지만 허는 길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를 길들여야 합니다. 생각이 복음화가 되어야 우리의 혀가 복음의 혀가 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약3:5)

혀가 비록 작을지라도 큰 것을 말하고 큰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를 보면 전부 다 말싸움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 그걸 가지고 무너뜨리고 살리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산불 난 걸 보십시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림을 태운 것입니다. 그것처럼 혀가 우리 몸의 지체 속에 작은 것일지라도 그걸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 속에 들어와있는 각인 뿌리 체질로 말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는 곧 불ियो 불의의 세계라 허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약3:6)

혀와 불은 동일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내뿜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의 복음화가 안되면 그 허는 불의의 세계에서 나오는 불이 됩니다. 상대가 지옥으로 갈 수 있도록 파멸시키는 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혀가 중요하고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이 불이 살리는 불이 되어야 합니다. 악을 태우는 살리는 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혀가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 없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허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으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약 3:7-8)

허는 길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쉬지 않는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쉬지 않는 악을 제어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의 빛이 임한 사람의 허는 살리는 불, 생명의 불을 내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

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약3:9-10)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나를 살리지 못한다면 내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내 입에서는 저주가 안 나오고 살리는 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의 말이 나오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 말이 많습니까?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 어떻게 찬송하고 한 입으로 어떻게 저주할 수 있습니까? 악을 품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가 되어서 안됩니다. 이건 복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 나에게 찬송이 나오고 악을 불사르는 생명의 불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불, 생명의 불이 나와야 합니다. 그 불을 통해서 모든 악을 제거하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약3:11-12)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욕하고 저주합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은 각인된 대로 한가지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각인이 안된 사람은 복음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쳐다보지마시고 그 사람의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단물이나, 쓴물이나, 그걸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은 살리는 말을 합니다. 그 각인된대로 말이 나옵니다. 생각의 복음화입니다.

3.위로부터 난 지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약3:13)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잘나면 얼마나 잘났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약3:14)

네가 가진 것이 있다면 얼마나 가졌고, 배운 것이 있다면 얼마나 배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답이 아니란 것입니다.

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약3:15)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전부 다 귀신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똑똑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인간이 되어서 안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생명의 혀를 가지고 악을 태워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약3:17)

생각의 복음화입니다. 생각의 복음화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충만한 복음의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약3:18)

혀를 통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살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지옥의 저주를, 악의 저주를 멸하고 태우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내 혀로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의 복음화로 각인 뿌리 체질되길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결론〉

▶결론은 말의 중요성입니다.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울 수 있음을 알고 선행이 되지 말고 실수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는 혀가 되길 바랍니다. 내 속에 담긴 생각의 복음화를 통해서 악을 태우고 살리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자랑하지 말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은 귀신의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혀를 가지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빛교회

ζωη φως ἐκκλησία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0-147호

담임목사 : 곽동호

전 화 : 010-5205-4079

E - mail : dhkwak0224@hanmail.net

인생복음상담 : 070-4406-4079